

학과 폐지로 교수 면직처분...法 “재량권 벗어나 위법”

이슈 파헤치



재량권을 남용해 학과를 폐지하고 학과 교수를 면직 처분한 대학교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교수가 교원소정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정

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의 한 사립 전문대학인 B대학은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맞춰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A교수가 일하는 학과를 폐지했다. 학과의 재학생이 전혀 없게 되자 B대학은 학과 폐지를 이유로 A교수를 면직처분했다.

A교수는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

고 결과에 불복한 A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B대학이 만든 ‘대학발전 구조조정 규정’은 교원처우의 변경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규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일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자신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데 B대학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면직처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구조조정 규정을 만드는 데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며, B대학은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B대학은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면서 문서수신 담당자들에게 안내문만 교부했을뿐 안내문 자체에 공고의 근거규정, 제정안의 취지나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고·열람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고·열람 대상도 대학구성원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로 보인다”며 “관련 위원회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점을 보면 구조조정 규정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메가몰, 남구청 에스컬레이터 양도대금 소송 ‘패소’

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관리...이후 메가몰과 공사 임대차계약

법원 “남구, 계약 당사자 아냐...유상 양도 규정 없는 등 인정할 증거 없어”

광주메가몰이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구청사 에스컬레이터 양도대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흥)는 광주메가몰이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대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2011년 광주남구종합청사 건물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했다. 이후 광주메가몰은

2017년 4월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메가몰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3층 중 1만7405.47㎡를 임대차보증금 14억원, 월 임대료 1억4000만원, 영업개시일로부터 9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광주메가몰

의 부담으로 설치 후 남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기로 했다.

광주메가몰은 2017년 6월 A건설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9월 말쯤 에스컬레이터는 완공됐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이 변경돼 A건설은 광주메가몰로부터 15억4056만8176원 중 당시 미지급 금액인 13억1850만5566원을 매월 7402만8870원(부가가치세 포함)씩 분할해 지급받기로 했다.

광주메가몰은 2017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메가몰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해야 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월19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광주메가몰은 남구가 에스컬레이터 양도대금 일부인 5억1454만8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주메가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 1억4000만원을 4270만8300원으로 삭감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용만큼 실질상해 렌트 프리(약정기간 상가나 사무실 등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월임대료를 감액받은 것은 광주메가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것”이라며 “남구는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광주메가몰의 대

리인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 양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을 보면 광주메가몰과 남구 사이에 에스컬레이터를 대금을 주고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거나 그 대금을 매월 월 임대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남구청사 상가건물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5일 ‘공사 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 폐쇄됐다. 광주메가몰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13일부터 정상 운영됐다.

뉴스1



대낮 음주단속 실시 18일 오후 대전 대덕구 대청수상레포츠펀터 인근 도로에서 대덕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4명을 치는 사고를 낸 6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차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휴가를 나왔다가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여 만이다.

광주서 中 유학생 ‘홍콩시위 지지’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광주에서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훼손되면서 경찰이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남대 학생이 지난 15일 발생한 ‘홍콩시위 지지’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수막 설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수막 훼손은 재물손괴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인문대 쪽문 담장에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현재 홍콩에서 진행 중인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한국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대자보는 불과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중국인 유학

생에 의해 강제로 철거됐으며 현재 그 자리에는 대자보 작성자와 홍콩 시민들을 비난하는 종이가 붙었다.

이어 15일 오후 3시쯤 전남대 인문대 쪽문에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 2장이 게시됐고, 벽보도 설치됐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장에 나타나 침을 뱉고, 욕설과 함께 벽보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건 학생 등과 대치했다.

같은날 오후 5시10분쯤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화를 하자면서 시민들을 불러 벽보 철거를 요구했다. 벽보를 설치한 학생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조심해라’는 협박을 남겼다고 학생 등은 주장했다.

16일 오전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찾은 학생들은



지난 15일 설치된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현수막이 날카로운 칼에 찢린 듯 훼손돼 있다.

커터칼 등에 의해 찢겨진 현수막을 확인했다.

특히 3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현수막을 찢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벽보도 일부가 훼손됐으며 해당 공간 일부에는 홍콩시위와 대자보 작성자를 비난하는 낙서가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